

“당보다 후보에 투표”...선택 폭 넓어져 표심 예측불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세번째)와 김민석 최고위원(맨 왼쪽), 장세일 10·16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맨 오른쪽) 등이 영광터미널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이 파는 채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장현 10·16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가 19일 영광군 영광읍 한 카페에서 영광 재향군인회 세탁봉사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공>

르포 - 10·16 군수 재선거 현장 명절 연휴 영광·곡성 시장 가보니

“아따, 이번 재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8일 영광터미널시장 일대는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 속에서도 10·16 재·보궐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뜨거웠다. 특히 연휴 기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열린 선거전을 펼치면서 지역 여론도 팽팽했다.
아직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지 않아 선거철을 실감케 하는 끈직한 현수막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연휴 마지막 날 상인들과 주민들은 손님을 맞거나 장을 보며 삼삼오오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바빴다.
민주당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은 여전했지만, 혁

민주당 ‘텃밭’ 기반 여전히 탄탄...조국혁신당 지지세 상승 중 유권자들 “군민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할 후보인지 살필 것” 총선 비례 득표 근소한 차이...“끝까지 긴장하고 민생 챙겨야”

신당과 진보당 후보에 대한 관심도 커 ‘본선 경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식육점을 운영하는 유모(여·70)씨는 “전남지역 민주당 기반이 튼튼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는 ‘민주당이 지역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한다’며 조국(혁신)당으로 물갈이하려는 이들도 많은 듯하다”며 “특히 지역이 낙후하면서 ‘민주당을 밀어주면 뭐하냐’라는 회의감도 상당하다. 수십년간 민주당만 지지해 왔는데, 이제는 특정 당을 떠나 지역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는 후보에게 한 표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굴비가게를 하는 허정석(72)씨는 “지지는는 당을 떠나 내 지역 군수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재선거

자체가 군민 입장에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40~50년 전에는 호남사람들이 ‘오로지 민주당’이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당연했지만, 이제는 군민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후보인지를 제일 먼저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광군수 선거에는 민주당 장세일 후보,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 진보당 이석하 후보가 나섰고, 무소속 양재휘·오기원·김기열 후보도 표발을 다지고 있다.
이날 장날이었던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 역시 재선거 얘기로 뜨거웠다. 35도에 달하는 뜨거운 온도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은 한 달 후 선거 속으로 빠져 들었다.

노점상 오모(여·70)씨는 “여러 번(3번째) 군수 선거에 도전하는 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곡성은 (제7대) 대통령선거 당시 김대중 후보보다 박정희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줄 만큼 유별난 지역이다. 민주당이 텃밭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긴장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절 때만 ‘반쪽’ 등장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군민도 있었다.
한명자(여·67)씨는 “지역 전통시장도 명절 같은 특수 기간이 아니면 파리가 날리고 있는데, 선거 때만 되면 앞다퉈 시장을 찾던 정치인들이 선거가 끝나면 감쪽같이 자취를 감춘다”며 “아직 누구를 뽑아야 할지 정하지 못했지만, 정치인들이 부디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의 고충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전남에서 나고 자라면서 ‘미워도 민주당’이라는 생각이 배에 박혀 있다”고 강조한 뒤 “전(이상철) 군수가 민주당 출신인 데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위를 잃게 된 만큼 지역민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후보를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군수 후보에는 민주당 조상래 후보와 조국혁신당 박용두 후보가 경쟁 중이며, 무소속 이성로·정환대 후보 등도 바닥 마음을 높고 있다.
민주당 텃밭인 영광·곡성 선거구에 조국혁신당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유권자들의 선택 폭도 덩달아 넓어진 모습이다. 두 지역 모두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 당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이 조국혁신당에게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는 점에서, 양당 모두 긴장을 놓치는 쪽이 패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민심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텃밭에 안주하고 있는 민주당의 변화’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한편 10·16 영광·곡성 재선거는 오는 26·27일 후보 등록 후 다음달 3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어 10월11·12일 사전투표, 같은달 16일 본투표가 치러진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尹 “체코 원자력 발전소 성공적인 완수 확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체코 원자력 발전소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종 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수주가 원활히 확정되도록 하

는 것이 이번 체코 방문의 목적 중 일부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paramount importance)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체코는 지난 7월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으나, 입찰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이러한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다면서 자사의 허락 없이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지적재산권 관련 의견을 해소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한미 양국 정부가 기업 간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양국 기업 간 분쟁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군건한 한미동맹 기초에 양국 원자력 협력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체코를 찾은 윤 대통령은 체코 지도자들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비롯한 북-러 밀착 등의 현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의료계, 전제조건 없이 대화의 장 나와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불가

대통령실은 19일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장에 나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장상운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료계는 협의제 제안에 대해 정부의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루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대화의 문이 열려야 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환자들은 의사 여러

분이 지켜야 할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또 “의사의 존재 이유인 환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수시 등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장 수석은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정부도 유연한 입장이며,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안을 주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산사에서 찾는 소확행
전통산악문화유산
2024 무등산 일호사

더 힐링스토리V

참가비 무료

무등산

동부도 팝업북
컬러링 스쿨

9.22.(일)
10.13.(일)
13:00-15:00

거북이
마라톤

10.5.(토)
13:00-16:30

대한불교조계종 무등산일호사 후원 국가유산청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

(062)266-0326 | 010-2193-7574 | www.wonhyosa.org